

“조선 시대 한글편지에 나타난 구개음화와 지역 문화”에 대한 토론문

배영환(제주대)

이 글은 조선 시대 한글편지를 중심으로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 중앙어에서 구개음화의 확산 시기 등을 논의한 것입니다. 주지하듯이 구개음화 현상은 근대국어의 가장 대표적인 음운 변화 중의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구개음화의 여러 쟁점 가운데 하나가 구개음화의 시작과 확산 방향이었다는 사실은 이 현상이 그만큼 여러 양상을 보여 언어 변화의 측면에서도 흥미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개음화는 남부 방언에서 먼저 기원했다는 단일설과 북부 방언에서도 이른 시기부터 구개음화가 존재했기 때문에 남부방언과 북부방언에서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다는 다원설 등이 논의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설은 문헌에 기반하여 최초 출현형 등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어느 설이나 구개음화는 지역 방언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앙어를 중심으로 한 중부방언에 전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중앙어에서의 구개음화는 17세기 후기 또는 18세기 초기에나 실현된 것으로 논의되었는데, 이러한 추정은 당시 중앙에서 간행된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된 것, 그리고 유희(柳僖)의 『언문지』 등의 기술 내용 등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들은 대체로 간본 자료를 대상으로 살펴본 후 귀납적으로 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이들 간본 자료는 문어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상대적으로 당시의 언어 질서를 반영했다고 알려진 조선 시대 한글편지 자료를 중심으로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을 논의하여, 중부방언에서의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았다는 점에서 이 발표는 의의가 있습니다. 본 토론자도 발표자의 의도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함으로써 토론자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제목에서 “조선시대 한글편지에 나타난 구개음화와 지역 문화”라고 하였는데 지역 문화는 본 발표문 속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개음화를 지역 문화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역 방언의 문제인지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혹은 과도교정 등을 중앙어와 지역어 측면에서 다루려고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마지막 부분에 “남부 지방의 구개음화 발생 시기와 중부 방언의 구개음화 발생 시기의 격차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마 이 부분이 이 발표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글편지에 나타난 구개음화

에 대한 실현 양상을 살펴볼 때, 중앙어에서의 구개음화의 실현 시기가 기존의 논의보다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기가 다른 경우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류의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발신자의 출신지나 성장지가 잘못 파악되었거나 아니면 시기 추정이 잘못되었거나 하는 점을 면밀하게 고찰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주지하듯 본관과 출생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필사자의 출신 지역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이유, 즉 통혼권 또는 배우자의 영향 등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개음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송준길의 부인인 진주정씨는 우복 정경세의 딸로 경상도 상주 출신입니다. 진주정씨의 편지에서 경상도 방언형인 어휘가 확인되는 것은 진주정씨가 경상도 출신 화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은진송씨 가문이 세거했던 논산 지역은 충청도와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와도 가까운 접경 지역이라는 점에서 접촉 방언과의 관련 사항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표문에서 김훈의 경우, 출생지나 성장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기가 어렵고, 배우자 신천강씨가 경상도 출신이라면 그 영향 관계도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3. 사실, 국어사의 논의에서 ‘경계’ 문제는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시간이나 공간은 모두 연속적인 속성을 가진 것인데, 인간이 사고의 편의를 위해 분절해서 인식하다 보니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16세기와 17세기, 경상도, 충청도, 서울 등으로 나누다 보니 중앙어에서의 구개음화의 실현 시기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좀 더 정밀하게 하려면 17세기 초, 중반의 국어사 자료를 방언권별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4. 언어 변화에서 이른바 ‘돌발형’ 또는 잘 해석되지 않는 형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지하듯이 중세국어의 ‘ㅅ-계’ 합용병서는 경음으로, ‘ㄷ-계’는 자음군으로 보는 논의를 뒷받침하는 근거 중에는 <계림유사>의 기술 내용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ㄷ’의 문제 역시 잘 설명이 되지 않는 예입니다. 언간 자료의 구개음화 양상 사례 가운데도 인선왕후 언간에 나타난 구개음화 실현형인 ‘-만정’이 있는데, 이 시기에 왕실 자료에서 구개음화의 예가 확인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돌발형’ 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5. 언간 자료가 언해 자료보다 당시의 언어 사실을 좀 더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궁

정적이지만, 연구자 입장에서는 자료에 대응하는 한자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자음의 구개음화를 논의할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한자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문맥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송시열 인간>에서 ‘정녕이’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할지 어려운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당 부분은 “내 죽은 후의 브디 혼 간 스당을 내 스당 올흔 녀희 지어 이 신쥬를 피시면 정녕이 서르 의지흔여 외롭디 아니리라”인데, 이때의 ‘정녕이’는 문맥상 ‘정녕, 틀림없이’의 의미이고 이때 대응되는 한자는 ‘丁寧-’입니다. 대체로 기존의 『한글편지 어휘사전』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녕’을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본다면 ‘精靈’으로 볼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세국어에서 ‘丁’의 한자음은 ‘ㄷ’에 곱, ‘精’은 ‘정’이라는 점에서 구개음화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한자의 문제가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